

01 교회소식

변화를 향한 뜨거운 도약!

만민의 학생들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충만해진 축복의 현장, '2017 학생 동계수련회' 소식.

02 생명의 말씀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2)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의 향이 중요하다.

03 기획특집

주를 향한 참사랑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된 사도 바울과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주님에 대한 참사랑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04 간증

“우리에게 꿈이 있어요~”

중·고생들로 구성된 예능위원회 소속 '미라클주니어' 팀 단원들이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힘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한다.

만민뉴스

제779호 2017년 3월 12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마음에 행복이 넘쳐요!”

변화와 생명의 역사로 가득했던 ‘2017 학생 동계수련회’



2월 23일(목)부터 25일(토)까지 학생주 일학교 주최 '2017 학생 동계수련회'가 진행되었다. 학생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능력을 받아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향기를 받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산상기도처 방문 시 더욱 변화된 모습으로 참여하자는 취지로 열렸다. 평소 이목사는 학생들을 위해 영육 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수련회 첫째 날 오전 10시 개회예배 시 교장 김창민 전도사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약 2:22)라는 제목으로 학창시절에 방황하던 자신이 변화되어 주의 종이 되기까지의 하나님 은혜를 간증함으로 학생들에게 변화에 대한 사모함을 더해 주었다.

이날 오후 2시 30분에는 교역자회 회장 이수진 목사(사진 1)가 '금 그릇'(사 64:8, 딤후 2:20~22)이라는 주제로 학생시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진리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힘쓴 일례들을 언급하면서 "말

씀과 기도에 힘쓰고, 마음을 주님 사랑으로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망으로 학생의 본분인 공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찬양과 기도를 통해 눈물로 회개하며 변화될 것을 결단했다.

이날 저녁 9시, 학생들은 진행 중인 '2회 연속 특별 다니엘절야'에 참석하였다. 만민기도원 이복남 원장(사진 2)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 주의 종들이 기도를 도울 때 회개의 눈물이 터지며 성령의 불세례가 임했다. 학생들은 "2시간 40분이 너무 짧게 느껴졌다.", "가슴이 뻥 뚫린 것 같다." 등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했다.

이후 "세상을 꿀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다.", "TV, 유튜브, 게임, 가요 등이 생각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끊겼고 이제 시간이 가면 말씀과 신앙서적을 읽게 되었다.", "짜증이 사라지고 말투도 예쁘게 바뀌어서 엄마가 행복해한다."는 등 삶의 변화와 척추측만증, 두드러기 등 치료 역

사를 체험한 간증이 이어지고 있다.

둘째 날에는 오전 10시 선교회별 모임 후, 낮 12시에 관악 제2구민운동장에서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날 오후 관악구 기온은 약 2도(기상청)였지만 체육대회 장소는 산 중턱임에도 기온이 14.8도까지 올랐다. 학생들은 최적의 날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구름 형상으로 펼쳐주시는 기사를 체험하며 영광을 돌렸다.

이날은 밤 11시부터 진행되는 금요일 야예배에 참석했으며, 특별히 학생들로 구성된 나사렛성가대가 '만민'이라는 곡을 찬양해 앙코르를 받았다. 1부 예배 후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이어진 2부 '찬양과 기도' 시간에도 시종 성령으로 충만했다.

마지막 날인 토요일 오후 3시에는 예능위원회 위원장 이희진 목사(사진 3)의 인도로 '찬양과 경배' 시간을 가졌다. 이목사는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 주며 하

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학생들은 몸과 마음을 다한 찬양의 기쁨을 맛보고 가사에 마음을 실어 눈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학생이 될 것을 다짐했다.

교장 김창민 전도사(사진 4)는 "동계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이 예배를 더욱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며,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던 학생들도 이제는 2시간이 넘도록 기도합니다. 회개하고 방언의 은사를 받은 학생들이 많으며, 주님과 목사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도 변화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요. 스스로 금식과 작정기도를 하며 세상 것들을 끊고,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등 변화의 증거가 나타나 학부모님들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2)

물 수입 등 공급받은 모든 것에서 십일조를 드려야 온전한 것입니다.

2) 다른 예물과 구별하여 별도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떤 분은 자신의 수입에서 각종 헌금과 회비 등을 제한 후 나머지에서 십일조를 드린다고 합니다. 또는 십일조를 드리면서 일부는 구제로 써 달라고 하거나 각종 다른 헌금으로 드린다면 온전한 십일조가 될 수 없습니다.

십일조는 반드시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다른 예물과 구별해 드려야 합니다. 십일조는 하나님 것이기에 다른 헌금으로 드리면 내가 하나님 것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 됩니다.

3) 자신이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교회에 드립니다. 환자가 자신을 치료해준 병원에 치료비를 내고,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에 등록금을 내듯이 십일조를 드리는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타교회 부흥성회나 집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아 감사나 건축 등 기타 예물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십일조는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에 드려야 합니다.

4) 각자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십일조는 가족이나 부부의 이름으로 공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특별한 수입이 없는 아내가 부부 이름으로 공동으로 드리기도 하는데, 십일조는 각자 수입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각자의 행위에 따라 상급이 각각이듯 이 땅에서 심는 물질도 각자의 이름으로 올려야 하지요. 그런데 공동의 수입이 부부에게 들어올 경우에는 공동으로 십일조를 드려도 가하며, 또는 합의하에 나누어 각각의 이름으로 십일조를 해도 됩니다.

5) 정규적인 수입이 없는 경우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직이니 십일조를 못 낸다고 하지만 먹는 것, 입을 것, 교통비 등을 공급받아 생활을 유지하므로 십일조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컨대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는 아내의 경우, 살림과 관련이 없는 식사나 여가 활동 등 자신이 임의로 쓰는 수입이 있고,

자녀들은 용돈이나 선물 등의 수입이 생길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한 십일조를 각각의 이름으로 드리면 됩니다.

6)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드립니다. 일 년에 한두 번 십일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가능한 한 매월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농촌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날마다 공급받는 것이 많으므로 잊지 않으려면 늦어도 한 달 간격으로 계수해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수 있습니다.

7) 수입에서 가장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십일조 곧 하나님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고 난 후 나머지를 쓰는 것이 합당합니다. 수입이 생기는 즉시 십일조를 구별해 놓아야 혹여라도 없어서 못 드리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방법

1) 헌물의 뜻과 의미

헌물이란 십일조 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과 물건을 일컫는 말입니다. 레위기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등 다양한 제사가 나옵니다. 또한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과 열매 등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예물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요.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약시대와 동일한 형식으로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대신 그 의미를 살려 각종 예배와 헌금과 헌물을 드립니다.

헌금으로는 각종 감사, 건축, 절기, 구제, 선교, 찬조, 구역예배 헌금, 화목제물 등이 있으며, 헌물로는 성미나 하나님 일에 소용되도록 드리는 각종 물건이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십일조와 더불어 헌물을 드리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한 것이라 하셨습니다. 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십일조와 더불어 각종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마 6:20~21).

진정 천국 소망이 있어서 온전한 헌물을 드리면 천국에 상급이 쌓이며 이 땅에서도 가정과 일터, 사업터를 지키고 축복해 주시지요. 때로는 ‘형편이 어려워 못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과 정성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눅 21:1~4).

2) 온전한 헌물을 드리는 방법

첫째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존귀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하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는 당연히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말 1:8). 흠 없는 예물이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예물에 흠이 없어야 함을 뜻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무엇보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며(고 후 9:7) 죄나 허물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드려야 기쁘게 열납하십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실제 예물도 구겨지거나 찢어지고 오물이 묻지 않은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각종 헌금도 십일조와 마찬가지로 쓰고 남은 것에서 대충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입이 생기면 먼저 구별해 두었다가 드려야 하지요.

둘째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변개함이 없어야 합니다. 감사예물로 드릴 것은 감사로, 건축예물로 드릴 것은 건축으로 정한대로 정확히 드려야 합니다(신 23:23). 나중에 임의로 구제나 찬조로 돌리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또한 작성한 액수에도 변개함이 없어야 하며, 자신이 볼 때 더 좋은 것이 생겼다고 작성한 것과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변개함이 없이 더 좋은 것을 드리기 원한다면 둘 다 드리면 되지요(레 27:9~10).

셋째로, 반드시 단에 올려 안수를 받아야 합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제사장이 안수하고 주관하에 드린 것처럼 오늘날에는 주의 종이 헌금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이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여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단으로 올려 기도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성도들이 드린 손길에 온전한 축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을 받기 위해 십일조를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영육 간에 넘치는 복을 주시며,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고 꾸어 줄지언정 꾸지 않으며 머리 되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신 28:1~14).

신앙의 기본인 주일 성수와 함께 온전한 십일조와 헌물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온전한 십일조를 드리는 방법

1) 총수입에서 십분의 일을 드립니다. 만일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 급여에서 세금, 연금, 보험료 등을 공제하고 80만 원을 받아 십일조 8만 원을 드렸다면 온전한 십일조를 드린 것일까요? 이는 바르게 계산한 것이 아닙니다. 총 급여 곧 100만 원을 수입으로 계산해서 드려야 온전한 십일조를 드렸다 할 수 있지요. 공제된 각종 세금은 수입에서 나가는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총수입이란 헌금뿐 아니라 각종 헌물 수입을 포함합니다. 즉 식사 대접이나 선물 받은 경우 등 비정기적 수입이나 현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녀오실 때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사별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성)

우리가 이뤄야 할 '주를 향한 참사랑'

이방인 선교의 초석이 된 사도 바울과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맨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우리도 주를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져 믿음의 선진들처럼 영원한 천국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란다.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

막달라 마리아가 풍족하지 못한 삶 속에서도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눅 8:2~3) 어려운 현실을 보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며 끝까지 변함없이 따를 수 있는 영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또한 자신의 생명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기에 죽음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어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다(행 21:10~14).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영적인 사랑은 영의 마음에서 비롯되며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 곁에서 공경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결코 힘들게 하지 않았다. 만일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섬기게 되지만, 영의 마음은 영의 생각으로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항상 그 마음에 맞추려 한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도 막달라 마리아를 보실 때 평안하셨고 그 섬김을 부담 없이 받으실 수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큰 사명을 맡길 만한 신뢰가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주님을 영으로 사랑하여 그 마음을 잘 헤아려 나갈 줄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와 사도 바울처럼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나'라는 자아를 온전히 깨뜨려야 한다. 육신의 생각과 자기적인 의를 버리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림으로써 영의 마음을 이루어야 한다. 그럴 때 영적인 사랑 속에 상대의 마음을 결코 힘들게 하거나 부담감을 주지 않고 평안함을 줄 수 있으며, 항상 그 마음을 헤아려 섬김으로 기쁨을 줄 수 있다.

그 누구보다 더 불타는 열정적인 사랑

막달라 마리아는 단 하루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사랑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임을 잘 알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았기에 때로는 냉대하시기도 하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으셨지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

예수님의 인성적인 분야에는 사랑이 있으시지만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신성적인 면을 더 보이셔야만 하는 그 마음까지 온전히 헤아렸기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여긴 것이다. 만일 주님을 위해 많은 수고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졌다면, 그것은 주님을 참으로 사랑해서 한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참된 사랑은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문하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로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어 출세가 보장되어 있었다. 그러나 내

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었기에(빌 3:7~8)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했던 것이다. 이 열정은 순교에 이르기까지 식지 않았고 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

그 누구보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기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고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 감사하였다.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고자 하고 깊은 감옥에 가둬도 문제되지 않았으며, 세 번이나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에서 지낼 때에도 두려움이나 요동함이 전혀 없었다. 예전에 주님을 핍박했던 자신의 모든 일을 가려 주시고 하늘에 상급 쌓을 수 있는 영광스런 자리에 이르게 하시며,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주심에 감사했다.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낮아질 수 있음에 감사했던 것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변개함이 없는 사랑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자신도 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갔다. 제자들은 이미 두려워 숨어 버렸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후에도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 드리기를 위해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갔고, 이때 부활하신 주님을 뵈게 된다(요 20:1~18).

이처럼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되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섬겼고 그 사랑이 결코 변개하지 않았기에 이런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며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해 주셨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전했다.

사도 바울도 순교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개하지 않았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했지만 그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했기에 육체의 고통은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핍박들을 오히려 더욱 값진 열매를 맺게 하는 밑거름으로 삼았고 그 모든 고통은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하는 채찍질로 여겼다. 이처럼 변개함이 없는 사도 바울이었기에 하나님 뜻을 받들어 순교의 자리에 이를 때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쳤고 이제 곧 주님을 뵈울 수 있다는 소망으로 가득했다.

이처럼 사도 바울과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능력 주시면 하겠나이다." 한 것이 아니라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도 귀하니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하겠나이다." 고백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했다. 그리하여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지극히 영광스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사랑장 5-9	■ 순전 1-2
■ 헛되고 헛되니 1	■ 십계명 10
■ 창세기 강해 112	■ 천국 6-11
■ 요한일서 강해 9-14	
■ 요한계시록 강해 18-24	
■ 믿음을 책망하시니 5-9	

GCN TV설교
■ 회개에 합당한 열매 1 (이수진 목사)
■ 순종 (이미경 목사)
■ 영의 세계 41 (이희선 목사)
■ 믿음의 분량 8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23 (정규영 목사)
■ 율법, 사랑 (김수정 목사)

예능 프로그램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0	
■ 권능 스페셜 7	■ 마지막 때 7
■ 창조와 과학 27	■ English 1
■ 알콩달콩 어여쁜 울동 61	
■ 내 마음의 찬양 35	
■ 모두 드려요 52	

해외성회 프로그램
■ 화상 6
■ 인도 연합대성회 3
■ 믿음으로 걸어온 길 39

아름다운 연주로 영광 돌리는 만민의 2세 - '미라클주니어' 팀



“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소중히 키워가는 만민의 학생들, 그 가운데 예능위원회 소속 '미라클주니어' 팀이 있다. 현악기, 관악기를 전공하는 중·고생들로 구성된 연주팀으로, 2013년 가을에 조직되었다.

단원 모두가 세계 최초 찬양전문 오케스트라인 우리교회 닛시오케스트라에 입단하여 연주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선교 사역에 함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소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영육 간에 겸비한 좋은 연주자가 되기 위해 학교 수업과 악기 연습을 병행해야 하는 녹록지 않은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도 실력도 키워가고 있다.



“현악기를 전공하려면 취학 전이나 늦더라도 초등학교 때는 레슨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중학교 때 뒤늦게 진로를 결정해서 현실적으로 보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니 실력이 쑥쑥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팀을 지도하는 오미진 권사는 말한다.

실제로 단원들은 저마다 팀 활동을 하면서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고 있다.

임예림 자매(바이올린, 영덕고3)는 실력이 부족해서 눈물만 흘리던 시간도 있었지만, 입단하여 특송할 때마다 하나님 은혜로 자신감과 실력이 향상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였다. 예림 자매는 “입시용 악기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할머니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악기를 축복받게 되었어요.”라며 간증한다(사진 3).

김예은 자매(바이올린, 문창중3)는 “전공으로 늦게 결정해 하루 4시간 이상 연습하면서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잘하고 싶은 부담감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미라클주니어를 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니 지금의 작은 노력이 모여 더욱 아름다운 연주의 향으로 올려드릴 것을 생각할 때 행복해요.”라고 한다(사진 4).

이주은 자매(바이올린, 덕원예고2)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하신 당회장님 말씀을 붙들고 연습했더니 준비는 늦었지만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고 예고에 형통하게 진학할 수 있었어요.”라고 한다. 주은 자매는 두 살 때 물만 마셔도 토하

고, 먹는 대로 쏟아내 심한 탈수 증세로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순간에 치료되었고 이후 아토피성 피부염도 치료받았다(사진 6).

박지원 자매(플루트, 덕원예고2) 또한 “생각지 못한 예고편입 제의를 받고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하나님 뜻이라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시험을 치렀는데 합격자 명단에 제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라며 간증한다(사진 8).

단원들은 저마다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영육 간에 겸비된 연주자로서의 자질을 갖춰가고 있다.



임주언 형제(비올라, 천왕중2)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창세기 강해를 들던 중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어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라고 한다. 가정형편상 음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이재록 목사의 지원으로 계속 꿈을 키워갈 수 있게 된 주언 형제는 태중에 있을때 유산 위험이 높았는데 이 목사의 기도를 받고 건강하게 태어났다. 또한 이 목사의 기도로 농가진과 화상도 흉터 없이 깨끗하게 치료받는 권능도 체험하였다(사진 7).

나이는 어리지만 무엇보다 단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자의 마음 자세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연주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임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이하영 자매(바이올린, 경기예고2)는 “어릴 때부터 다니엘철야를 참석해 기도했어요. 영의 마음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설교들을 정리하고 있어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이룬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어 교회와 목사의 힘이 되고 싶어요.”라며 포부를 말한다(사진 1).

장한결 자매(비올라, 신림고3)는 “하나님께서 주신 만민찬양을 연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연주를 올려 드리는 것을 첫째로 마음에 두고 싶어요.”라고 고백한다(사진 5).

연주 실력과 더불어 하나님께 아름다운 마음의 향을 올리는 권세 있는 연주를 하기 위해 단원들은 영적인 자기관리도 하고 있다.



총무 이하영 자매는 닛시오케스트라 단원인 오미진 권사(바이올린), 김예은 자매는 김숙경 집사(오보에), 이주은 자매는 오승희 권사(플루트), 김다영 자매는 이현미 집사(피아노)의 딸로 대를 이어 영광 돌리고 있다.

단원들의 궁극적인 소망은 장차 이를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 보좌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다. 작년 겻세마네 기도처에서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뒤 그 소망이 더욱 간절해졌다. 그들은 고백한다. “저희가 연주자의 꿈을 꿀 수 있었던 것도, 그 꿈을 키워갈 수 있게 해 주신 것도 모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확실한 비전을 심어주시며 기대하시고 믿어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해요~”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철야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54)748-5777, 010-3747-57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5층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19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천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자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왕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층 ☎055)852-5815, 010-9196-3927
- 청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이천시성전 경기도 이천시 종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